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The Devil Wears Prada

'왜 명품은 페미니즘의 적인가?'
-잘해봐!
-에밀리 찰튼과 약속했는데요
Hi. Uh, I have an appointment with Emily Charlton?

- 앤드리아 삭스?
- 네
-인사과도 완전 포기했나 보네 따라와요 난 미란다의 둘째 비서였다가 얼마 전 첫째로 승진했거든
- 당신이 당신자릴 뽑는군요
- 뽑는 족족 짤리고 있어서 무조건 오래 버틸 사람이 필요해
- 근데 미란다가 누구죠?
-지금 그 말 안 들은 걸로 해줄게 '런웨이'의 편집장, 패션계의 전설! 이 비서 자릴 노리는 여자들만 수백만이야
- 우와~! 제가 뽑히면 정말 영광이에요
-앤드리아? '런웨이'는 최고의 패션지야 패션감각 없인 힘들다구
-감각이 어때서요?
-말도 안돼 안돼, 안돼!
-왜 그래요?
-미란다 떴다! 모두 비상!
-9 시도 안됐잖아
-피부관리사가 다쳐서 마사지가 취소됐대요!
- 얜 뭐야?
- 대책 없는 물건
-전원! 똥배 집어넣고 긴장해!
-누가 양파 먹었나?
-죄송해요
-비켜!
-세상에, 예약 컨펌이 그리 힘든가?
-어젯밤엔 멀쩡해서...
-네 변명 따윈 관심없어 시몬이 보낸 모델 아니라고 전해 가슴은 처지고 똥배까지 나왔더군 마이클 코어스 파티엔 잠깐 들를 테니 9 시 30 분에 내려주고 15 분 후에 픽업하라고 해 오늘 저녁엔 치즈 케익 대신 과일 토르테 주문하고 전 남편한테 학부모회 시간 알려줘 지금 남편한텐 전의 그 식당으로 오라하고 여자 공수부대 기사 사진 너무 추해 다시 찍어오라 그래 잘빠진 여군이 그리 없나?
- 그러게요
-내가 하늘의 별을 따오래? 아니잖아 기네스 펠트로 커버사진 가져오라고 해 애 낳고 살 좀 뺐나? 쟨 뭐지?
-아무도 아녜요 인사과에서 비서 후보로 보냈는데 면접해봤더니 도저히 안되겠어서...
-면접은 내가 볼께 니가 뽑은 애들 못 믿겠어 들여보내 나가봐
-네 ..들어오라셔 빨리! 두고 가 점수만 깎여 가봐!
-이름이 뭐지?
-앤디 삭스예요 노스웨스턴대를 갓 졸업했죠
-여긴 왜 왔지?
-비서직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실은... 기자가 되고 싶어 뉴욕에 와서 여기저기 지원서를 보냈지만 연락온 게... 솔직히 여기뿐이라서
- '런웨이' 읽어봤어?
- 아뇨
- 내 이름은 들어봤나?
- 아뇨
-물론 패션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겠고
-그건 보시는 관점에 따라...
-노, 노 질문한 거 아냐
-전 대학신문 편집장도 했고 경비노조에 대한 글로 전국 대학기자상도 받았고...
-나가봐
-맞아요, 전 여기 안 어울려요 모델처럼 마르지도 않고 패션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전...똑똑하고 일도 빨리 배우고
- 기네스한테 '카발리'를 입혔는데 이 끔찍하게 큰 깃털장식 때문에 카지노 쇼걸 같아 보여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불쌍한 아가씨는 누구죠?
-이달에 '도전 신데렐라' 기사 있나?
-앤드리아! 니가 패션잡지사에 뽑혀?
전화 면접이었냐?
어쭈, 날 놀렸어!

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미란다는 괴팍하기로 유명하다구
넌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알아?
사실 난 여자거든
드디어 밝히는구나
그 여자 밑에 들어가려고 줄 선 사람만 수백만이래
글쎄, 난 그저 그래
배부른 소리
네이트의 이 직장을 봐
요 싸구려 식당보단 낫잖아?
릴리 쟤 직장은 갤러리라고 폼 잡지만...
잠깐, 니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뭐더라?
나만 꿈의 직장을 가졌군
- 기업경제연구소?
- 기업경제연구소?
그래, 내가 젤 비참해
- 무진장 지겨워
- 그만 울고
한잔 해
- 술로나 풀어야지
- 우리 건배하자
밥벌이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런웨이' 여자들 옷이 장난 아냐
당장 뭘 입고 다니지?
전화받고 커피 타는데 드레스라도 입어야 돼?
어쩌면 넌 뭘 입어도 멋있어
말은 잘 해요
- 저기, 있지
- 응
오늘 밤엔 옷 안 입고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구
- 여보세요?
- 앤드리아!
미란다가 9월호 편집에서 가을 자켓 기사를 뺐어
비상이야!
당장 와줘 오는 길에 커피 좀 사와
- 지금?
받아 적어
크림 뺀 라떼 한잔
1cm 덜 채운 뜨거운 블랙커피 세잔 절대 식으면 안돼
- 여보세요?
- 도대체 어디야?
거의 다 왔어요
이런
세상에, 내 커피는 언제 오는 거지?
사오다 죽었나?
아뇨, 이런...
빨리도 온다!
일을 이따위로 하면 정말 곤란해 나까지 짤린다구
코트는 단정히 걸어놔
이제, 전화를 받는데 한통도 놓쳐선 안돼
응답기가 받는 거 젤 싫어하셔
나 없을 땐 절대 자리 비우면 안돼!
혹시 피치 못하게...
안돼! 전에 한 비서가 손 베서 자릴 비웠다가 라거펠드 전화를 놓쳐 그날로 쫓겨났다구
지금은 '벼룩시장'에서 일해
무조건 책상을 사수할 것 명심하고
미란다 프리슬리 사무실입니다
자리 비우셨어요
누구요?
전화하셨다고 전하죠
불쌍한 인간
자기랑 난 절대 틀려!

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온갖 허드렛일은 자기 몫이고
각종 스케줄 관리는 내 몫이야
게다가 난... 함께 파리에 가게 돼있지
명품으로 감고 우아한 패션쇼와 파티에 참석할 거라구
전화 잘 받아 난 미술부에 "책" 갖다주고 올게
이게 책이야
다음 호의 모든 이슈가 들어있는 가제본
이걸 매일 밤 미란다 집에 갖다 놓으면 그녀가 메모를 달아서 아침에 돌려주지
책 전달은 둘째 비서 일이지만
미란다는 검증 안된 신입이 집에 들락대는 걸 싫어하거든
싸이코일지도 모르니까
- 급한 일 생기면...
- 알아서 처리해
프리슬리 여사 사무실입니다
맞아요
미란다 프리슬리죠
회의 중이신데 메모 남기시겠어요?
오케이
저...'베르사체' 철자 좀?
여보세요?
되게 급하네
245 맞지?
감사하지만 필요 없어요
이 모습으로 당당히 채용됐는걸요
- 과연 그럴까?
에밀리? 에밀리?
자기 말야
이게 아니라니까
에밀리! 대체 몇번을 불러야 오는 거야?
전 앤딘데요
본명은 앤드리아고, 앤디는 애칭이죠
'캘빈 클라인'에서 스커트 열벌 가져와
어떤 걸로...
질문은 다른 사람한테나 해
낼 오전 8 시 '59 번 부두' 예약해놔
조슬린한테 '마크 제이콥스' 신상품 보자고 해
시몬한텐 재키를 쓴다고 해
드마쉘리에 확인했어?
- 드 드 드마쉐?
- 드마쉘리에
전화 연결해
그러죠
그리고, 에밀리?
네?
나가봐
드마쉘리에는?
드마쉘리에
놔둬
있어?
미란다 전홥니다
연결됐어요!
날 불러서 '59 번 부두' 얘길 하고
시몬, 재키에게 뭔가 하라고 시키고
'캘빈 클라인' 스커트랑...
또... 뭔가 보잔 얘기도 했어요
어떤 스커튼지 들었어?
- 색상? 모양?
- 물어봤는데...
질문은 절대 금지야
그럼 자긴 '캘빈 클라인'에 가봐
내가?
더 급한 일 있어?

월남치마 패션쇼라도 가니?
- 미란다?
- 다 왔나?
막 도착했어요
곧 올라...
- 여보세요?
- 나간 김에
'에르메스'에서 미란다 스카프 찾아와
학교에서 쌍둥이 책가방 찾아오고
미란다는 외출했어
스타벅스 커피
- 사다 놓으래
- 다시 좀 말해 줄래요?
맙소사
왜 이제 와?
쌀 뻔 했잖아!
내내 참았어요?
책상을 사수했지
터질 지경야!
아, 안녕하세요
코트 걸어놔, 어서
각오해, 12 시 반 컨셉 회의 공포의 시간이지
전화통에 불 날 거야
컨셉 회의?
미란다와 부장들의 피 말리는 회의 말야
기자가 된단 사람이 어쩜 그런 것도 몰라
- 갈까?
- 왔어?
난 볼일 보고 밥 먹고 올게
내 후임이야
- 말했지?
- 농담인 줄 알았어
전혀~
내 식사시간은 20 분
자긴 나 다음에 15 분
- 옷이 저게 뭐니?
- 할머니 꺼 물려 입었나 봐
콘차우더는 열량 덩어리야
셀룰라이트가 허벅지를 두껍게 하지
여긴 다 굶고 살아요?
여기 여자들은 44 사이즈에 목숨 걸었지, 44 가 대세야
난 66 인데
요즘 사이즈론 77 이네
- 이런!
- 괜찮아
집에 그딴 거 많지?
알았다
지금 내 옷, 흉보는 거죠?
어차피 패션쪽 금방 뜰 건데
굳이 내 스타일 바꿀 필요 없잖아요
맞아
그게 이 거대한 패션산업의 본질이지
내면의 아름다움
옙
가자구
미란다가 컨셉 회의를 30 분 당겼어
- 그럼 우린...
- 이미 지각이지
- 서둘러
- 젠장!
회장님

- 잘 돼가나?
- 9 월호는 대박감이죠
듣기로는 미란다가 가을 재킷 기사를 뺐다던데
- 얼마 손해지?
- 약 30 만불
재킷이 형편없었나 보군
난 라비츠요
앤디예요 미란다 새 비서죠
축하해요 백만대 일 경쟁을 뚫었군
안녕히 가세요
'엘리어스 클라크'의 회장님이셔
사람들은 그를 작은 거인이라 부르지
이런 스타일은 식상해
테이스켄스가 새 허리라인을...
- 다른 드레스들은 어딨지?
- 여기요
- 잘 보고 배워
- 이건 흥미를 끌...
됐어
정말 실망이야
세상에 왜 컨셉회의가 늘 이렇게 엉망인 거지?
몇 시간이나 준비했을 텐데
이해가 안되네, 정말!
샘플들은 어딨지?
- '바나나 리퍼블릭'만...
- 이거 가지고 되겠나?
이건...
- 어떻게 생각해?
- 야시시한 색감의
발레리나 스커트 괜찮네요
- 하지만 너무...
- '라크르와' 같다구?
제대로 액세서릴 붙이면 돼요
벨트 맞는 거 없나?
미리 준비 좀 하지?
결정하기 어려워요
둘이 너무 달라서
뭐가 웃기지?
아뇨, 전 그냥...
제 눈엔 똑같아 보여서요
전 아직 이딴 거...익숙지 않아서
"이딴 거"?
이게 너완 상관없는 일이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블루 스웨터를 껴입고 대단한 지성이나 갖춘 양 잘난 척을 떠는데
넌 자기가 입은 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
그건 그냥 블루가 아냐 정확히 세룰린 블루야
또 당연히 모르겠지만 2002 년엔 드 라렌타와 입센 로랑 모두 세룰린 컬렉션을 했지
재킷 좀 가져와봐
세룰린 블루는 엄청 인기를 끌었고 백화점에서 명품으로 사랑받다가
슬프게도 니가 애용하는 할인매장에서 시즌을 마감할 때까지 수백만불의 수익과 일자릴 창출했어
근데 패션계가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그 스웨터를 니가 패션을 경멸하는 상징물로 선택하다니
그야말로 웃기지 않니?
난 그냥 벨트가 똑같아 보인다고 했을 뿐인데
얼마나 섬뜩하게 말하던지! 입에서 면도날 나오는 줄 알았어
웃지마
우리가 공포에 떠는 걸 즐기는 것 같아
근데도 딱딱이들은 그녀를 숭배해
누구?
딱딱이들 하이힐 신고 대리석 위를 딱딱딱 걷는 여자들
무슨 암 치료제나 개발하듯 호들갑떠는데 하는 짓 보면, 하찮은 일에 돈과 정력을 쏟아 붓더라구
쓸모없는 옷과 백을 더 많이 팔기위해 30 만불씩 처들여 찍은 화보를 가볍게 버린다니까!
이젠 배도 안 고파

- 그래서 다들 삐쩍 마르나봐
- 이리 줘
비싼 치즈 넣었다구
하지만 1년은 버텨야 돼
그럼 원하던 길로 갈 수 있어
근데 1년을 어떻게 참지?
진정해
- 굿모닝
- 아이작 연결해
내 아침은?
달걀은 어딨어?
실례!
란제리 부서에서 사진 찾아와
내 차 브레이크 점검 받아
어제 읽던 신문 어디 뒀지?
우리 쌍둥이 줄 새 서핑보드 좀 사와 조리 슬리퍼도 잊지마
내 '마놀로' 구두 찾고 패트리샤 데려와
- 누구?
착하지, 착하지
그 가게에서 내가 찍은 그 테이블 사다 놔
경치 좋은 그 식당에 저녁 예약 해놔
오늘 올라온 노트는... 다들 어딨지?
일하는 사람 없어?
이스트사이드는...
드마쉘리에 연결해
미란다 전홥니다
연결됐어요!
드뎌 주말이다!
미란다 출장 덕분에 맘 편히 쉴 수 있겠네요
주말엔 아빠가 오셔서 같이 '시카고' 볼 거예요
선배는 계획 없어요?
있어
네이트가 추천했어요
여기 취직하려다 퇴짜 맞았죠
뭐죠?
집세 밀리지 말라고
아빠, 어떻게...
엄마가 일렀구나
고마워요
- 아빠 보니 정말 좋아요
- 나두
궁금해 죽겠죠?
지금 심문 하실래요?
밥 먹고 하지 뭐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걱정 돼
새벽 2시에 회사에서 메일을 보내질 않나
봉급은 작고 글도 안 쓰고
안 쓰다뇨
이메일도 글이에요
스탠포드 법대도 물리치고
기자가 되겠다고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니?
여기 경력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에밀리는 파리에도 간다구요 거기서 전 세계의 언론계 주요 인사를 다 만난대요
저도 곧 그렇게 돼요 절 믿으세요 이건 제 인생의 기회예요
보스예요 죄송해요 통화 좀 할게요
비행기가 결항됐어
날씨 때문이래
난 오늘밤 꼭 가야 돼
쌍둥이가 발표회를 한다구
- 내일 학교에서!
- 방법을 찾아볼게요

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무리인 줄은 알지만... 뉴욕행 비행편을 구해줄 수 없나요?
오늘밤 뉴욕에만 올 수 있음
- 뭐라도 좋아요
- 얘야!
- 죄송해요
- 이쪽이야
마이애미발 뉴욕행 비행기 있나요?
나도 알아요, 허리케인
전부 결항이에요?
이건 미란다 프리슬리의 일이라구요!
당장 제트기가 필요해요
마이애미 발...
잠시만요
미란다!
허리케인 땜에 다들 뜰 수가 없대요
무슨 소리!
겨우 보슬비 가지고
뜨는 게 있을 거야
도나텔라한테 전화해
제트기 가진 사람들 전부
연락해서 알아봐
이건 네 일이야!
나, 집에다 데려다 놔!
날 죽일 거야
뭐야, 공군에라도 연락하래?
아뇨... 가능해요?
뮤지컬이나 보자
'시카고'
발표회는 훌륭했어!
라흐마니노프를 쳤는데 모두 감탄을 했지
나만 빼고!
왜? 난 못 갔거든!
- 미란다, 죄송해요
- 왜 널 뽑았는지 알아?
난 스타일 좋고 늘씬하고, 패션을 숭배하는 그런 애들만 뽑아
근데 그런 애들은 왠지 일하는 게 실망스럽고 멍청하지
그래서 너의 그 인상적인 이력서와 니 잘난 소신인지 뭔지에 잠깐 혹한 거라구
한번 바꿔보자 모험을 해보자
똑똑한 뚱보를 써보는 거야
난 정말 네게 희망을 걸었는데 넌 멍청한 누구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날 실망시켰어
전 최선을 다했어요
나가봐
여보세요?
어디 가세요?
미란다는 날 싫어해요
그게 나 때문이던가?
아니지, 내 문제는 아니지
뭘 어떻게 하냐구요
잘한 건 무조건 당연한 거고
좀만 잘못하면 쌩난리를 치고
때려 치워!
예?
관둬
새 비서는 널렸어
5분 만에 구할 수 있어
제가 왜 관둬요? 제 말은 그냥...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단 얘기죠
솔직히 자기가 뭘 노력했는데? 징징대기만 하잖아
위로를 바래?
"어구 불쌍한 것 미란다가 그랬쪄?"
"가여워라"
꿈 깨, 66 사이즈
그게 미란다 일이라구

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우린 금세기 최고의 예술가들과 작업하고 있지
할스톤, 라거펠드, 드 라렌타 이들은 예술보다 더 위대해
우리 삶의 일부를 창조하기 때문이지 물론 자기는 빼고
우리들 말야 우리 '런웨이'는 말이지 그냥 잡지책이 아냐
이건 저
로드아일랜드 촌구석에서 6 형제의 막내로 태어난 어린 소년이 축구 대신 몰래 봉재를 배우며 읽던 찬란한 희망의 등불이라구
전설적인 디자이너들이 수없이 거쳐 간 이곳을 위해 남들은 죽는 시늉도 하는데 자기한텐 그저 스쳐가는 자리잖아
그러면서 미란다가 이뻐해주길 바래? 이해도 해주고 칭찬해 달라고? 꿈 깨, 아가씨
그러니까 제 잘못이군요 저도 잘하고 싶지만 뭘 어떻게 해야...
나이젤? 나이젤~
싫어
내게 뭘 기대하는 거야
여기엔 66 사이즈 없다구
전부 샘플이라 44 아니면 55 야 좋아, 이건 괜찮겠군
판초?
군소리 말고 받아 '돌체'도 어울리겠어 구두는... '지미 추'하고 '마놀로 블라닉' '낸시 곤잘레스' 좋아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딱 좋다
잘하면 맞을지도 몰라
'샤넬', '샤넬'은 꼭 있어야 돼
뷰티팀에 가서 확 고쳐야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미란다가 왜 그런 앨 뽑았나 몰라
맞아, 뷰티팀에서 뒤집어졌잖아
'슈에무라' 눈썹고데기를 들고 뭐냐고 묻더래 완전 대책 없는 애란 걸 첫 눈에 알아봤어
미란다 프리슬리 사무실입니다
안 계신데, 전할 말씀은?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건 혹시... '샤넬' 부츠냐고?
그렇죠 뭐
오늘 멋지다
왜?
- 맞잖아
- 시끄러!
내일 봐
조심해서 가
나... 어때?
내 여친이 보기 전에 빨리 뜨자고
샘플 멋지더군, 랄프
와인 색 드레스를... 커버에 쓸래
한 학기는 감자만 갖고 씨름했지
튀긴 걸 부시며 강도 측정하고
늦어서 미안
뱀가죽 머리띠 찾느라 온 시내를 돌았거든
- 요즘 뱀가죽이 뜨는 아이템이지
끝내주는 선물 가져왔어
기대하시라
- 그게 뭐야?
- '뱅 앤 올룹슨' 전화기
미란다가 싫대
검색해봤는데 1100 불짜리야
- 뭐?
- 와아
또 있어 '메이슨' 브러쉬, '크리니크' 화장품
죽이는 직장이다
마지막으로 릴리 꺼 싫어?
- 안 주면 죽일 거야!
싫진 않나 봐
'마크 제이콥스' 신제품!
- 어디서 구했어?!
- 미란다가 필요 없다길래...
1900 불짜린데 정말 내가 가져도 돼?
- 가져도 돼
- 명품이 그렇게 좋냐?

- 시꺼
- 속에 담을 건
- 쓰레기뿐이잖아
- 패션의 가치를
실용성으로 따져선 안돼
패션은 개성의 표현이지
- 뭣보다 예쁘잖아
- 그것두 중요해
알고 보면 '런웨이'도 꽤 훌륭한 잡지야
매클러니나 크리스찬의 글도 싣고 시사적인 인터뷰도 하고 완전히 세뇌됐군
왜 그래...
어디 봐
그 마귀할멈이군
- 받아야 돼
- 내가 야단 좀 칠게
안 받으면 죽음이야!
안돼, 안돼! 어서 내놔
미란다? 물론이죠 지금 당장 갈게요
너희는 친구도 아냐!
재수없어!
제임스 홀트 씨를 찾는데요
- 저깄네요
- 아, 고마워요
아니에요
물건 내곤 제발 승인만 되라 했지 뭐
전 앤디예요 미란다 심부름을 왔죠
새 에밀리군요 반가워요
그 백 죽이네요 멋져요
부드러운 가죽 고급스런 메탈장식 스타일리쉬 하네요 누가 만든 거죠?
당신
아시네
미란다의 자선파티 드레스랑 봄 컬렉션 스케치예요 일급비밀이죠
- 목숨 걸고 지킬게요
- 부탁해요
그녀랑 일하려면 독한 술이 필요할거요
실례
펀치 한잔 줘
천천히 마셔요
진짜 독하죠
펀치 말예요
전에 깨보니 부랑자처럼 길에 신문 덮고 누워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현명하군
- 성함이?
- 크리스찬 톰슨
크리스찬 톰슨?
설마...
저 선생님 글 넘 좋아해요
선생님에 대한 논문도 썼었죠
내 살인미소에 대해?
- 아뇨...
- 하는 일은?
아마추어 작가인데 '뉴요커'지 기자가
- 꿈예요
- 그래요?
글을 읽어보고 싶군 보내봐요
그래도 돼요? 그래 주심 영광이죠
하지만 당장은 미란다의 비서라서
정말? 안됐군 정말... 안타깝네
언제쯤 짤릴까?
- 예?
- 착하고 똑똑한 사람은 그런 일에 안 어울려

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전 가볼게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미란다 아가씨
에밀리?
홀트에게 오늘 12 시 반으로 프리뷰 시간 당긴다 하고 다들 준비하라고 해
프리뷰를 왜 갑자기 앞당긴대?
-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그 분이 상냥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분이던가요?
-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프리뷰가 뭐죠?
최신 콜렉션에 대한 미란다의 사전 품평회
- 어서 오세요
- 제임스
- 평을 해줘요?
- 미란다 식으로 이번 시즌은 동서양의 만남으로 시작됐죠
한번 끄덕이면 '굿' 두번은 '베리 굿' 미소는 극찬인데
2001 년 톰 포드가 유일해
- 오비식 벨트예요
- 별로면 머리를 젓지
이건 당신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거예요
입을 오므릴 때도 있어
무슨 의미죠?
대재앙
들어가, 빨리!
- 알아요.
- 이해가 안돼, 형편없었어
- 형편없었죠, 제가 말할게요
- 자기가 처리해
입 한번 오므렸다고 컬렉션을 전면 수정해요?
아직도 몰라?
그녀 의견은 절대적이야
- 남편과의 저녁은...
- 예약해 놨어요
갈아입을 옷은...
스튜디오로 보내놨죠
좋아, 앤드리아
밤에 우리집에다 책 좀 갖다놔
키는 에밀리한테 받고
- 목숨 걸고 지켜야 돼
- 알았어
책을 맡긴 건 날 인정한단 뜻?
게다가 날 드디어 앤드리아라고 불렀어 넘 신나지 않아?
그래, 기분 째지시겠어
이제 잘 듣고, 정확히 내 말대로 해야 돼
어, 알았어
책은 미술부에서 10 시 반쯤 나올 거야 세탁한 미란다 옷도 함께 가져가
기사가 집앞에 내려줄 거야 안으로 들어가 절대 누구랑 말하지도, 쳐다보지도 마
자긴 투명인간이 되는 거야, 알았지?
문을 따고 들어가면 현관홀이 나와 계단 맞은 편 옷장에 미란다 옷을 걸어놓고 꽃이 놓인 테이블에 책을 놔둬
- 뭐야!
- 왼쪽에 있는 문
그래
고맙다
책은 우리한테 줘
- 어떤 테이블이지?
- 갖고 올라와
- 안돼
- 괜찮아
- 올라와
- 제발 말 시키지 마
올라오래두 에밀리도 늘 그랬어
언제?
맞아, 그랬어, 항상

그래?
촬영 중에 어떻게 나와
난 회의 중에 나와서 1 시간을 기다렸어
핸드폰도 불통이었어요
다들 한심한 듯 쳐다보더군
"또 아내한테 바람맞았냐"
알아, 안다구
정말이야!
무사히 잘 넘어갔어
애들과 인사만 나누고
2 층에서 책을 전해줬다구
2 층에 올라갔단 말야?
아예 미란다 침대서 자고 오지 그랬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해를 못하는군 니가 짤리면 난 파리에 못가 그렇게 됐단 봐 무시무시하게 복수할 거야
날 해고한대?
알 수 없지 암튼 무지 살벌해
앤드리아?
- 미란다, 어젯밤엔...
- 해리포터 좀 구해봐 쌍둥이 주게
당장 서점에 갈게요
갑자기 머리가 돌 됐니?
- 예? 무슨 말씀이신지...
- 우리 쌍둥이는
다음 시리즈를 원한다구
미출판 원고를?
출판된 거면 왜 고민하겠어
능력을 보여줄 거지?
우리 이쁜이
알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 JK 롤링한테 전화해서 사정해볼까?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니까 3 시까지 오면 돼
- 그럼요!
- 점심은 스테이크로 15 분 후에 준비해놔
문제없어요!
해리포터 구하는데 4 시간 남았어!
근데 이 시간에 스테이크 파는 데가 어딨냐구
갔다 올게 행운을 빌어줘!
싫은데?
미란다 프리슬리가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건 알지만...불가능한 것도 어떻게든 가능하게 안될까요?
해리포터 원고 땜에 걸었는데요 미출판 본이요 안돼요? 미란다 프리슬리 부탁인데도? '부랑자 햄릿' 크리스찬 톰슨 저
다시 걸게요 기억하세요? 홀트 씨 파티에서 만났는데 새 해리포터 원고?
미쳤군
죄송해요 넘 절망적이라서
포기하고 딴 방법을 찾아봐요
미란다 사전엔 '딴 방법'이란 없어요
오셨어? 나 짤렸대?
내가 웬만해선 참견 안 하는데 좀 진정해! 왜 저러니!
코트랑 백 뭐지?
점심은 회장과 먹을 거야 3 시에 올 거니까 커피 사다놓구
그때까지 해리포터 못 구하거든 돌아올 필요 없어
여보세요?
관둔다고? 정말?
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칠 거야
잘 생각했어, 축하해
이제 자유의 몸이야
이따 다시 걸께
난 천재라니까
내 기념비를 세워줘야 할 걸
설마!
해리포터 북 디자이너가 아는 사람이더라구
이런, 결국 제가 해냈단 얘기네요
실은...

크리스찬... 전 지금 막...
갖고 싶음 바로 달려와요
미안합니다
'세인트 레지스 호텔'
뭘 도와드릴까요?
킹콜 바가 어디죠?
이쪽입니다
- 1 시간 남았군
- 고마워요
겨우 한권? 이걸 둘이 같이 보라고?
노노, 카피를 두권 떠서 책처럼 제본까지 했어요 이건 원본이죠
그 멋진 카피본은 대체 어딨는데?
쌍둥이가 보고 있죠
더 시키실 일은?
나가봐
예
'딘 앤 데루카'에선 딸기 작은 팩이 5 불이야
그치만 자기의 퇴사 기념식을 위해 큰맘 먹고 질렀지
네이트...
관뒀으면서 왜 쌍둥이 숙제를 해줘?
- 너무 친절하네?
- 자기랑 통화하고 나서...
그 동안 고생한 게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구
내가 잠시 약해졌었어
모르겠어? 니 보스는 싸이코야
알았어
알아서 해 네 일이니까
네이트 이해해줘 이 일을 한다고 내가 달라지진 않아 난 예전과 똑같은 앤디야 옷만 좀 좋아졌지
예전 옷이 좋았어
정말? 이 목걸이 어때? 이 새 옷도 싫어? 새로 입은 게 또 있는데 역시 싫어하겠군 어때? 싫구나?
이게 2 번 옷이야? 2 번 옷이냐구?
돌아서 봐
이 화보 컨셉은 '도시의 정글'이군요
현대 여성, 야성적 본능을 발산하다
좋아, 가
내가 말하고도 웃기네
바비!
- 고마워요
- 미란다한테 로샤를 디오르로 바꿨다고 해
퍽이나 좋아하시겠네
말투가 무지 거슬린다?
이제 공짜로 옷 안 준다!
스트레스 때문예요 남친과도 위태위태하고
한쪽이 잘되면 한쪽은 탈이 나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는 거야
좋아, 2 월호 표지 모델은?
셀마 헤이엑 섭외했어?
셀마는 여름호에 더...
섭외해, 그리고 대법원 여판사 얘긴 빼버려
대신 성형수술 쇼핑을 한번 더 다루자고
이 겨울 풍경 레이아웃 전혀 멋지지 않아
- 검토할게요
- 테스티노는?
-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 포센 작품이 훌륭해서 테스티노에게 촬영을 맡겼어요
완벽해!
하나라도 밥값을 하는군
4 월 액세서리?
에나멜 어떠세요?
에나멜 팔찌, 목걸이...
전에 써먹었잖아
다른 건?
요즘 꽃 장식이 다시...

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꽃 장식? 봄 잡지에?
정말 참신하네
거친 공장지대를 배경으로 꽃의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됐어
그게...
하나라도 쓸만한 것 좀 없나?
아님, 항균티슈 같은 거라도?
- 감기는 어때?
- 죽을 지경이야
오늘밤 자선파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발렌티노'를 입고 코만 풀게 생겼으니 파티 땜에 미란다도 일찍 나갈 거야
자긴 '펜디'백 쇼룸에 갖다놓고 퇴근해
와우, 신난다
케익 살 시간을 벌어 다행야
오늘이 남친 생일이거든 파티를 열어줄 거야
자기 얘긴 별 흥미없거든
안녕
난 내 일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보세요?
두 사람, 파티 전에 게스트 이름 전부 외워둬
에밀리만 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건 에밀리가 병원체가 되기 전 얘기지 와서 보조를 해줘 나가봐
우린 이걸 다 외우고 미란다가 아는 것처럼 도와줘야 돼 난 아주 달달 외웠지
- 이걸 오늘 다 외우라고?
- 농담해? 여기 더 있어 먼저 시작하고 있어
너도 없이 어떻게... 알았어, 빨리 와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
멋지다!
갈 때 다시 전화할게
제게 맞을까요?
뭐 어떻게든 꾸겨 넣어봐야지
'런웨이' 자선파티
글쎄요...
매년 하는 행사라서...
세상에 자기 너무 쉬크하다
고마워
선배도 진짜 말라보여
정말?
파리에 가려고 다이어트 중이거든
기절하기 직전에만

- 치즈 한 조각씩 먹지
- 진짜 효과있네
설사까지 나면 금상첨환데
존 폴저 첼시 극단 신임 감독
존, 어서 와요
언제 봐도 반갑군요
그만 안달해
너무 늦어서...
그만 포기해
에밀리
프랑스판 '런웨이' 편집장
쟈끌린 아냐?
맙소사, 미란다가
젤 싫어하는 여잔데
- 몰랐어
- 그렇다니까
변함없이 멋진 파티요
쟈끌린도 왔군요
이런 조촐한 행사까지 챙겨줘서 고마워요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걸요
그 말 들으니 더 고맙네요
내 쪽지 받았어요?

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수요일에 얘기합시다
- 좋아요
일 얘기는 나중에 파티를 즐기세요
에밀리?
어쩌지?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외웠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직책이... 그...알았는데...그 이름이...
프랭클린 대사와 바람났던 레베카예요
레베카
- 대사님
- 미란다, 너무 멋있어요
고마워
이게 누구야?
눈이 부시군
이게 다 내 덕이지?
그보단 제 성격 덕이 크죠 전 별로 안 착하거든요
맘에 들어
멍청한 남친한테 가던 길이오?
말투가 원래 그래요?
그럴걸
전 이만
'뉴욕'지 편집장을 만나보고 싶지 않소?
당신이 보낸 글을 봤는데 너무 많아서 다는 못 읽었지만 나쁘지 않더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편집장도 만나고 같이 한잔 합시다
그럼 딱 한잔만...
아니, 안되겠어요 죄송해요
남친한테 안부 전해줘요
로이, 속도 좀 내줄래요?
네이트도 이해할 겁니다
그럴까...
자기 생일 축하해 정말 미안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구
상관없어 난 자러 갈래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늘 예쁘다
앤드리아? 책 가져왔어?
이번 파리 출장은 최고로 중요해
나한텐 최상의 팀원이 필요해 즉, 에밀리는 제외야
그 말씀은 저를...?
미란다, 그건... 에밀리한텐 죽음예요 그녀는 파리에 목숨까지 걸었다구요 못할 짓이에요 전 못 가요
자기 미래를 별로 신경 안 쓰나 보지? 출판계엔 발붙이기 힘들어질 텐데 알아서 결정해 나가봐
앤디
안 잘 거야?
금방 갈게
앤드리아, 에밀리한테 얘기해 지금 당장!
받지마 제발 받지마 받지마라
- 여보세요
- 에밀리
- 늦어서 미안 미란다스카프 찾아오는 걸 바보같이 깜빡 했지 뭐야 내 정신이 아냐
- 저기, 할 말이 있어
다행히 샵이 일찍 문 열어서 스카프를 무사히 찾았어
이따 사무실에 오면 꼭 할 말이 있어
- 또 뭐 저질렀니?
- 그건 아니고
다행이야, 난 지금 네 뒤치다꺼리 할 여유가...
에밀리?
어떤 공갈협박에도 굴하지 말고 싫다고 했어야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알잖아
그건 치졸한 변명이야 고마워요 뭐가 젤 화나는 줄 알아? 마치 패션엔 전혀 관심도 없는 척 기자가 꿈이네 어쩌네 했던 게 다 사기였단 거야!
- 화낼만 해

넌 '지미 추'를 첨 신던 그 날, 영혼을 팔았어 이건 정말 불공평해 파리에서 받게 될 온갖 명품 옷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네게 돌아가냐고!
엿 같아! 너무 억울해
- 에밀리
- 그만 가
- 에밀리
- 가라구!
파리 패션쇼?
연중 최고의 이벤트지
전부 다 보겠네?
라거펠드
- 니콜라 게스키에르
- 너 진짜 여자 아냐?
- 안녕
- 안녕
전시 멋지다
네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저 뒤 사진부터
쭉 보며 나아가면 돼
- 알았어
- 네겐
- 소개할 사람이 있어
- 예술과 섹스, 좋지
이따 봐
여기요!
미란다 아가씨!
안녕하세요
지금 막 당신 생각 중이었는데
거짓말
진짜요
고티에 인터뷰를 준비하고 파리 일정을 짜면서 혹시 당신도... 파리에 가지 않을까...
실은 가게 됐어요
잘됐군 난 7번가 호텔에 묵을 거요 그 앞엔 아주 소문난 맛집이 있지
전 시간내기 힘들 거예요 딴 파트너 찾아보세요
어쩐다 이젠 당신 밖에 안 떠올라
릴리 그냥 일로 만난 사람야
- 너흰 그렇게 일하니?
- 오해하지 마
네이트를 지독히 사랑하는 앤디는 늘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였어 넌 내가 아는 앤디가 아냐
너무 낯설어 명품이나 걸치고 바람이나 피우고 이젠 널 모르겠어
파리 잘 다녀와
파리에 가?
갑자기 그렇게 됐어
에밀리가 가고 싶어했다며
그래, 내가 나쁜 년이야
앤디
앤디!
- 왜 화를 내?
- 나도 어쩔 수 없었다구!
- 못 간다고 할 수 없었어
- 알아
넌 항상 그렇게 변명하지 마치 자기 책임이 아닌 듯이
니가 생일땜에 꽁해있으니까 그렇지
- 내가 어린애냐?
- '런웨이', 미란다
내 옷까지 못마땅해 하잖아
주방보조나 하는 내가 누굴 욕하겠어 다만 네가 뭘 하든 초심을 지키길 바랄뿐야 처음엔 '런웨이' 여자들을 조롱하더니 너도 똑같이 변했잖아
- 누가 변해?
- 암튼 그건 네 선택였어 이제 우린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

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 진심은 아니지?
- 진심이야 어쩌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겠지
네이트 미안, 잠깐만
네가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전화의 주인 같다 둘이 잘 살길 바래
미란다?
'발렌티노'
'아자로'
미란다
참석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 컬렉션 어때요?
- 최고예요
안심되네요
이쪽은 새 에밀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쇼는 어땠죠?
- 미란다, 여기요
- 이쪽 좀 봐줘요
미란다, 나이젤
반가워요
미국과 프랑스 패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죠?
당신은 내게 갚을 빚이 남아 있소
- 그래요?
- 물론
오늘 밤도 일해요?
- 미란다는 약속이 있죠
- 그럼 자유로군
애인이 맘에 걸려요?
설마... 헤어진 거요?
- 맘이 아프군
- 표정은 아닌데요?
실은 기뻐 몇 시에 만날까?
전화하겠소
크리스찬, 사진이요!
이제야 왔군
좌석 배치도를... 수정해야겠어
- 점심 초대한 거
- 예, 드릴게요
여기 뒀을 거예요
그렇게 굼뜨기도 힘든데
그것도 네 독특한 소신인가?
먼저... 스눕 독을 내 테이블로 옮기고
거긴 꽉 찼는데요
남편은 안 올 거야
남편 분은...
그럼 공항에... 리무진 안 보내도 되나요?
니가 그럼 한번 물어봐 이혼 취소하고 올 거냐고
아님 공항에서 죽치고 기다려보든가
뉴욕에 돌아가면 레슬리를 불러서...
이혼보도를 최대한 축소시켜 보라고 해
이혼했으니 가십란 톱을 장식하겠군
뭐라고 쓸지 뻔해
"패션계의 마녀... 일중독자..." "얼음의 여왕 재혼 남편과 또 파경"
언론사들이 내 덕에 판매부수 많이 올리겠군 그들이 뭐라 떠들던 난 상관없어 다만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구
또... 실망하겠지 아빠란 존재가... 다시 사라졌으니 끝났어
암튼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베르사체의 자리배치야
워낙 낯을 가리거든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저녁 약속 취소할까요?
바보 같은 소리 취소를 왜 해?
제가 도울 일은?
니 일이나 잘해 나가봐
미란다 스케줄 좀 줘

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들어오세요
누가 골라준 거야?
제가 대충 껴입었어요
한번 돌아봐
- 와우, 정말...
- 괜찮아요?
근사해 이젠 하산해도 되겠어
우리 샴페인으로 건배하자
뭘 위하여?
수백만 여성들이 선망하는... 꿈의 직업을 위하여
잘 버텨온 나를 위하여!
자기 얘기가 아냐 제임스 홀트 알지?
마시모 코텔레오니가 홀트에게 전폭 투자하기로 했어 세계적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야
제임스에겐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파트너가...내가 될 것 같아 괜찮아, 미란다도 알아 그녀가 추천했는걸?
당신이 떠나면... '런웨이'는 어떡하라구요
- 알아 그치만 너무 좋아! 평생 처음 내가 오너가 되는 거라구 이젠 파리도 내 맘껏 즐길 수 있어
축하해요 당신은 자격 있어요
너두야, 66 사이즈
- 55 예요
- 정말?

- 위하여
- 널 위하여
- 우릴 위하여
- 어디 봐봐
미란다랑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변명해줄 거 없어
그 여잔 악명높은 새디스트야
가죽옷에 채찍만 안 들었지
하지만 남자였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을걸요
설마 진심으로 변호하는 거야?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는군
때론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해
난 반대해요
- 그러지마, 섹시해
- 섹시?
- 진짜로?
- 그래
우리 제대로 가고 있어요?
- 전 어딘지 모르겠어요
- 파리 지리는 내가 훤하지
난 파리를 사랑해
거트루드 스타인 왈
"미국은 조국이오 파리는 고향이다"
맞는 말야
혹시 작업 걸 때 쓰려고 그런 명언을 모으나요?
- 맘에 안 들어?
- 제 스타일은 아네요
내겐 그게 여가선용이지
사실 전엔... 파리를 예찬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했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안돼요, 죄송해요 네이트랑 헤어진 지 겨우... 너무
마셨나 봐 감각이 제멋대로예요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핑계도 안 떠오르고...
다행이야
됐다
'런웨이'
이게 뭐죠?
뭐 같아?
시안이야
무슨?
미란다를 내쫓고 쟈끌린이 만들 새로운 미국판 '런웨이'
쟈끌린이 새 편집장?

영어자료는 여기 다있다!! 영공카페 http://cafe.naver.com/ilovespeech

그리고 쟈끌린은 내게 기사 편집권을 맡겼지
뭘 그렇게 놀라? 젊은 감각을 불어넣을 때도 됐다구
이제 미국판 '런웨이'가 확고한 정상에 오른 이상 비싼 미란다를 쓸 이유가 없단 거지
회장은 철저한 사업가거든
미란다는 '런웨이'에 평생 모든 걸 바쳤어요
끝난 일이야 회장이 곧 통보할 거야
그녀는 아직 몰라요?
걱정 안 해도 돼 끄떡없을 거야
- 가야겠어요
- 끝난 일이라니까
베이비, 가지마
난 당신 베이비가 아니에요
- 다행히 계셨군요
- 뭐라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쟈끌린... 젠장!
'스위트 로얄'
- 무슨 일이죠?
- 안녕하세요?
회장님, 실례합니다만...
너 지금 미쳤니?
할 말이 있어요
- 다신 방해하지 마
- 딱 1분만... 미란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쟈끌린을 당신 후임으로 영입한대요
미리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 프리지아 냄새 안 나?
- 네?
아뇨
그건 꼭 빼라고 당부...
혹시라도 프리지아가 눈에 띄면 알아서 해
창간 72년째를 맞은 '런웨이'는... 전 세계 패션을 이끌어 왔으며 역대 최고의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는 '런웨이'를 정상에 올려놓았죠
여러분, 미란다 프리슬리를 소개합니다
고마워요, 나이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제임스를 소개할게요
오늘은 제임스에게 무척 뜻깊은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최근 이루어진 마시모 코텔레오니 씨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디자이너 제임스 홀트란 이름이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런웨이'와 제임스는 닮은 점이 있죠 바로 일류를 향해 노력해왔다는 점 그렇기에 그가 새로운 파트너로 서슴없이 '런웨이' 사람을
선택한 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이자
존경하는 동료 쟈끌린 폴레
그럼 본격적으로 파티를 시작할까요?
우리 '런웨이'에선...
언젠간 보상해 주겠지
그렇게 믿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믿어야 돼
몰랐을 줄 알았니?
이미 오래 전에 눈치챘어
난 쟈끌린을 치울 적당한 자릴 물색해왔지
마침 거액 연봉에 혹해서 파트너 자릴 덥석 물더군
솔직히 이젠 회장도 인정하고 있어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걸
내가 없으면 '런웨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리스트가 결정적였지
내가 발굴하고 키워온 디자이너, 사진작가, 편집자, 작가, 모델... 내가 어디를 가든 날 따라 옮기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결국 회장도 손들었지
그나저나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해주다니 아주 아주 감동 받았다 넌 정말... 날 많이 닮은 것 같아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어볼 줄 알고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할 줄도 알지
전 그렇지 않아요 전...
나이젤한테도 그런 짓은 못하죠
벌써 했잖아 에밀리한테
그건 달라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니, 넌 분명 널 위해 선택했어
그건 네가 이런 삶을 원했단 뜻이지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요? 전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요?
웃기지마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해 다들 우리처럼 되길 원해
'미란다'
금방 다시 들어가야 돼
웬일야?
네가... 옳았단 얘길 하고 싶었어
난... 친구랑 가족, 내 신념에까지... 등을 돌렸었지 왜 그랬을까?
- 구두 때문에 명품 셔츠, 재킷, 벨트... 네이트...
미안해
나... 보스턴의 오크룸에서 면접을 봤었어
그래서?
부 주방장에 뽑혔지 곧 그리 떠날 거야
- 잘됐다, 축하해!
치즈 샌드위치가 그립겠는걸
보스턴에도 좋은 빵과 치즈가 많아
매일 해줄 수도 있어
정말?
그래
넌 어때? 이제 어쩔 거야?
실은 오늘 면접 봐
그래? 그렇게 입고?
됐거든, 이게 나야
앤디, 난 그렉이오
- 안녕하세요
- 이리 오세요
글들이 좋더군요
특히 경비노조에 관한 글 궁금한 건 '런웨이'예요
어쩌다 그런 패션잡지로 빠진 거죠?
배운 건 많아요
끝이 좀...안 좋긴 했지만
'런웨이'의 거만한 비서 통해 메모 남겼더니
미란다가 친필로 팩스를 보냈더군요
"내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비서다."하지만, 채용 안 하면 당신은 멍청이다" 일을 제대로 했었나 봐요
'뉴욕 미러' 미란다 프리슬리 사무실입니다
에밀리, 앤디야 끊지마 부탁할 게 있어
지금 부탁이라고 했어?
파리에서 얻은 옷들 말인데 내가 입을 일이 있어야지 선배가 입어주면 안될까?
글쎄 사람 참 귀찮게 하네
워낙 커서 다 줄여야 할 테지만
내가 도와줘야지 뭐 오늘 차 보낼게
고마워 잘 있어
전임 반만 따라가도 자긴 성공하는 거야
세상에, 제 시간에 차대기가 그렇게 힘든가? 안 가?